

근대로 접어들어 성욕은 이중의 구속을 받게 된다. 기독교적 윤리는 성욕에 대한 ‘거룩한 억압’을 거행, 공적인 담론에서 애욕적인 것을 삭제시켰지만, 동시에 자본은 포르노/성매매와 같은 성의 상품화를 통해 다채로운 성욕의 배설구를 마련했다. 즉,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누구나 다 아는 비밀’로 치부되며, 암암리에 섹스에 대한 더 많은 말이 떠돌게 된 것이다.

연애는 이 이중 구속의 사이에서 태어난 근대의 산물이다. 근대 이전의 욕망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새로이 학습된 열정”이라는 점에서 더 그러하다. 3.1 운동 이후 꽃핀 ‘문학’은 바야흐로 ‘연애의 시대’가 열리는 데 일조한다. 3.1 운동 이전, 계몽 담론과 함께 신과 민족에 투사되었던 ‘이상 열기’는 고스란히 연애로 이동한다. 이러한 흐름은 이광수의 소설 <재생>에 잘 드러나 있다. “연애와 돈, 이것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종교다.” 애국과 종교를 포기하고서라도 이루어야 하는 사랑, 그것은 곧 지고하고 순결한 연애에 대한 강요로 이어진다. 곧 연애가 신성하고 고결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애국적 열정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연애의 변경에서 사랑을 외치다

돌이켜 보면 그럴싸한 연애사 없는 이 어디 있으리. 고백하건대, 지금 요람 속의 잠든 아기처럼 고요한 내 심장도 날뛰며 파도치던 시절이 있었던 말이다. 흐드러진 목련 아래, 함께 걸으며 향그럽게 젖던 봄밤, 믿었던 사랑에 뒷통수를 맞고 몸이 차게 식어 덜덜 떨리는 것을 눌러 참으며 잠을 청하던 여름밤, 사귀자 말하고 수줍게 손 맞잡고 걸었던 인사동 거리의 가을밤, 음...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려고 하지만, 아무튼 나한테도 있었다. 심박이 너울너울, 머리가 어질어질, 가슴 뛰고 웃고 아프고 눈물짓던 그런 걱정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말이다. 갓 대학에 들어온 어린 시절의 나(지금도 어리지만)는, 잃어버린 12년의 청춘을 보상받고 싶었고, 그것을 연애가 보상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다들 그러잖아, 대학에 왔으면 연애를 해야 한다고, 청춘을 불태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연애뿐이라고. 난 끊임없이 애정을 회구할 대상을 찾았고, 짝사랑했고, 데이고, 짝사랑했고, 물론 또 데이고, 사랑했다. 지금 와 돌이키면 그 때의 내게 연애는 지상 최대의 미션이었다.

그렇게 대기마저 연애로 가득 차 있던 그 시절이 지나가고, 첫 연애가 끝났던 때, 나는 다시 스스로를 ‘결핍’된 존재로 느꼈다. 그 결핍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연애만 한다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또 누군가를 찾아 나섰다. 체질에 맞지도 않는 소개팅을 두 번 하고, 한 번은 차고, 한 번은 쿨한 척(했지만 실은 몹시 찢질하게) 매달리다 나가 떨어진 다음, 생각했다. ‘왜 난 안 팔리는 거지?’

그렇게 연애시장에서 팔릴 만한 상품이 아닌 자신을 닦달하며 또 한 철이 지났다. 이제야 겨우 평온을 되찾은 내 마음, 난 이제 그 때만큼 연애가 필요하지 않다. 물론 난 지금도 호기심이 넘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좋아하고, 관계에 대한 열망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누군가 물었다. “요즘 난 연애가 너무 하고 싶은데, 이난은 언제?” 생각해 봤다. 연애, 별로 관심이 안 생긴다. 연애가 시작될 무렵의 오고 가는 미묘한 감정의 흐름은

그렇지만, 그 이후의 지지부진한 시간들을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답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다. 그 지지부진한 시간들을 참아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권태를 감당하고서라도 아무하고나 하는 연애를 감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생긴 거구나. 지금 내 옆에는 나를 스스럼없이 깊게 받아들여 주는 친구들이 있고, 연애에 집착하지 않게 만드는 다양한 흥미들이 있다. 좀 더 사실에 가깝게 고백하자면 멀리 있는 만인의 우상에게 대리 연애감정을 쏟아 붓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건 지상에 없는 연애를 위한 역할극 놀이에 가깝다. (이게 무슨 소릴까)

지난 시간들의 나는 자신에게 자신이 없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누군가와 사랑을 해야만 했다. 그야말로 사랑이라는 ‘텅 빈 사물’ 속에 채워넣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금의 나는 단 한 사람에게 매달려 모든 감정을 토해내 버려야 살 수 있을 만큼 절박하지도 외롭지도 않다. 소통에 대한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의 통로들을 나는 가지고 있다. 헤어질 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남아 있다. “난 이제 너 말고는 친구가 없는데.” 나와 사귀며 타인들과의 모든 접점이 끊어져 있던 상태였다. 그렇게 되도록 자신을 방치해 두었던 것이다. 오로지 둘 만의 관계에 매몰되도록, 연애는 그것을 조장한다.